

甲辰譜序

曰祖先子孫之根本子孫祖先之枝葉也時亂倫敗枝葉之爲枝葉者日遠日忘永慕者幾希忘之則歸悖子逆孫慕之則歸孝子慈孫爲子孫者孰不欲爲孝慈乎然而不知自身之派系源流則孝慈之心無由而發也惟我金塘之宋同源於入島祖訓練僉正壽福府君也而世衰道迷不知親系分派故追先報本之心解弛甚者骨肉相爭置之於例事豈不痛歎也哉古之君子所以明系譜之意圖在於此也由予而上知源之遠則思有以孝焉由予而下知流之長則思有以慈焉由予而旁及知千枝萬葉之本乎一源則思有以睦焉是所以資於譜之術也敢不勉耶向者宗中有志會集少尹公家乘譜編輯事發議滿座即席相應余以不才從宗中之託濃在編輯校正之任而顧素乏識見想多誤漏者矣何敢望其無謬也雖然觀是譜而起孝慈敦睦之心推而廣之則不惟吾宗之幸其於世道亦有所補矣但願僉宗以譜明系以牒明倫互相敦睦勿負古人之意圖

西紀一九六四年甲辰三月下澣

後孫 希錫 謹識

甲辰譜序解說

말하자면 祖先是 子孫의 根本이오 子孫은 祖先의 枝葉이다 時代가 褪變하고 倫理가
 퇴폐되어 枝葉의 枝葉이 된者 날로 멀어지고 날로 망각하여 永慕한者 거의 드물고
 망각하면 悖子逆孫이 되는 것이고 생각하면 孝子와 慈孫이 되는 것이고 子孫된者 그 누
 가 孝子와 慈孫이 되기를 願치 않으리요마는 自身의 派系와 源流를 모르면 孝慈之心이
 發生할 길이 없을 것이다 우리 金塘宋氏은 모두 入島祖壽福公의 後孫이건만 世上이 혼
 란하고 道義가 희미하여 親系와 分派를 모른 탓으로 追先報本心이 흐려져서 甚한者는
 骨肉間에서 서로 다투기를例事로 알고 있으니 어찌 痛歎할 일이 아니겠는가 옛 君子들이
 系譜를 밝히는 意圖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나를 中心으로 위로 根源이 멀다는 것을 알
 면 저절로 孝心이 울어나는 것이고 나를 中心으로 下流의 길을 알게되면 저절로 慈愛
 心이 나올 것이고 나를 中心으로 옆으로 千枝萬葉이 一源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면 저
 절로 親睦心이 나올 것이니 이것이 譜牒의 德인 것이다 敢히 힘쓸 일이 아니겠는가 지
 난번 宗中有志들이 모여 少尹公家乘譜 發刊事가 發議되자 滿座가 即席에서 相應하매
 내가 不才한 사람으로서 宗中의 부탁을 받고 本譜의 編輯과 校正을 맡게되었다 내 本
 譜學에 見識이 不足한 사람이라 想必 誤漏가 많을 것이니 어찌 敢히 宗中の 꾸지람
 을 免할수 있으랴 그러니 譜牒을 보고 孝慈敦睦의 마음을 일으켜 미루어 넓히면 다만
 우리 門中의 多幸뿐만이 아니라 또한 世道에 보탬이 있을 것이다 다만 願컨대 前宗은

譜牒으로 系統과 倫理를 眾히 先祖의 意圖를 저바리지 마소서

甲辰年三月下旬

後孫 希錫은 삼가쓰

癸亥譜序文

어느 民族이나 그 民族의 歷史가 있고 어느 氏族이나 그 氏族의 族譜가 있다 그리하여 民族은 歷史를 通하여 民族魂이 길러지고 이 民族魂에 依하여 民族이 團結되어 繁榮하게 되며 氏族은 族譜를 通하여 祖上의 業績을 追慕하여 崇拜하고 그 傳統을 繼承하여 一家끼리 遠近을 莫論하고 서로 和睦하고 團結하여 繁榮을 이루하는 것이니 氏族의 族譜는 곧 民族의 歷史나 나름이 없다 오늘날 文化民族 카고 族譜가 없는 나라는 없다 中國을 爲始하여 西獨 루랑스 英國等 西歐諸國은 勿論 日本에서는 上流層에서 族譜를 保存하고 있으며 특히 美國에서는 많은 民族의 族譜를 간직하고 있다한다

人間이 萬物의 靈長으로 높은 評價를 받는 理由가 무엇인가 곧 人間은 根本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根本을 안다는 것은 곧 族譜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极小數이기는 하지만
相當히 識者層에 있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달나라에 往來하는
科學文明時代에 캐캐먹은 옛날 族譜에 머리를 쓴다는 것은 時代에
뒤진 일이라」고 族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傾向이 있으나 이런
사람은過去도 없고 未來도 없고 단순히 現在에서만 살려는 뿌리없
는 나무요 枝葉이 없는 나무나 다름없으니 어찌 痛歎할 일이 아니겠
는가 우리 金塘宋氏는 入島祖의 쌍으로 仁蔭德으로 他門에서 볼수 없
는 大繁榮을 이루고 있으니 우리는 이것을 惟一의 자랑으로 삼음과
同時에 總和團結의 美風을 積極造成하여 後孫들에게 부끄럼이 없는
祖上이 되어주기를 渴望하는 뜻에서 몇마디 적어서 序文으로 한다
꼴으로 이번 譜事에 애써주신 任員 여러분 그리고 發刊事務에 誠意
를 다해주신 回想社 社長任以下 從業員의 勞苦에 對하여 深甚한 謝
意를 表합니다

西紀一九八三年癸亥正月

後孫 希錫 謹識

礪山宋氏少尹公家乘譜

始祖

宋惟翊

—

世

世

四

世

五

世

六

世

子淑文

子希植

子松禮

子琰

子
惲

一名攸益高麗進士官政堂文學追封銀古名南春官三宰追封銀青光祿大夫青光祿大夫知樞密封金紫光祿大夫知樞密院府事○墓全院事戶部尚書○貞門下省事判戶部事羅北道礪山府東十烈公誌曰世爲礪良○墓京畿道開城郡里許天壺山下文殊縣戶長至公始仕于西南風流洞西坐舊洞西北中峯虛谷南朝○墓失傳而丁巳失傳今稱壺月里寅坐每譜耶英後孫家乘譜憲宗己酉後孫寬玉云墓在考墓同圖始祖墓下果有一墳然石改莎築以十月十三日祭焉○配國大夫人黃山徐氏父文林郎尉府事主簿同肅宗二十四年追復祭焉縣陞爲郡元敬王后閔氏外鄉世宗十八年以年冬至祭焉

憲宗己酉後孫寬玉
因主人傳說採得誌
石改莎築以十月十
三日祭焉○配國大
夫人黃山徐氏父文
林郎尉府事主簿同
正茂○一男

定順王后姓鄉陞爲府○宣祖丙戌十五世孫巡撫御使言慎立表石○英祖癸亥十八世孫統制使徵來又立表石十九世孫左議政寅明撰高宗庚戌又立石山下旁裔恩津宋秉珣撰銘○弟天翊移居德恩因爲縣人現在位土畠三六〇○坪垈一一九七五

字立仁高麗熙宗三官正憲大夫軍簿判
年宋寧宗開禧三年書○後孫廷耆私世
丁卯生官推誠翼戴系云安社功臣同平
輔理同德佐命功臣章事即山府院君謚
匡靖大夫三韓三重文肅公○配幸州奇
大匡門下侍中判典氏父郎將洪穎祖父
司事上將軍致仕礪太師允肅曾祖太師
良府院君食邑一千守全外祖判司宰事
戶忠烈王十五年元長興任景恂或云云
世祖至元二十六年高麗元宗公主○二
己丑正月二十日卒男二女
壽八十二謚貞烈公
墓京畿道長湍府西
六里臘江廢縣大谷
山今稱洪陵山庚坐
外孫李敞葬其親掘
地得公誌文吳漢卿
所製云內勁外溫恬
淡有節吏罷武蹈險
全德誅逆臣崔瑄休
行實宋理宋景定五
年巡元宗于蒙古即
位嘉定甲子八世孫礪
良尉寅改封○墓立

子邦英
官密直副使○一男

子淵
官判事○五男二女
見下